

안녕하십니까?

시디스크 한국본부 CDISC K3C 회장 신임희입니다(인사)

2019년 CDISC SUMMIT이 한국에서 개최하며,
한국 CDISC본부인 CDISC K3C가 재조직되고, CDISC연합본부의 승인으로,
한국본부 회장이 되며, 가장 큰 바람은 한국에서 인터체인지를 여는 것이었습
니다. 그 큰 바람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 이렇게 개최되니 지나간 일들
의 감회와 더불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Korea Interchange 그 첫 시작을 알
립니다. (모두 박수)

먼저 국내외 귀빈소개를 하겠습니다.

귀빈 한분 한분씩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구반바퀴를 돌아 참석해주신, CDISC 의장이신 Peter Van Rusell이십니다.

CDISC 개발지원 부회장이신 Rhonda Facile이십니다.

CDISC 글로벌 협력부회장인 Sheila Leaman

CDISC 이사이신 Wenjun Bao이십니다.

또 한분의 중요한 분이 오셔서, 11일부터 public training course를 훌륭히
수행하시고, 인테체인지에 참석하신 CDISC 유럽연합본부CDISC E3C 회장이
신 Nick De Donder이십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귀빈이십니다.

국가임상지원재단 KoNECT의 이사장이신 박인석 이사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케이메디허브 본부장님이신 정명훈 본부장님 이십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안영진 과장님 이십니다.

KIT 한국안전성 평가연구소의 ?? 소장님이십니다.

더불어, K3C의 재조직뿐 아니라, CDISC를 위해, 특히 이번 인터체인지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하신 클루피의 김기환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LSK의 박명환 부사장님이십니다.

나눔스테이스대표이시며, 전북대학교병원의 김민걸 교수님이십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김경원교수님이십니다

제이애피메디 ??

이외에도,

제이애피메디, 세이프소프트 관계자분들과, 인터체인지 개최를 위하여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지와 협력을 온마음으로 해주신 K3C모든 멤버분들께 CDISC 한국회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CDISC K3C가 재조직이후 한국본부 회장으로써의 가장 큰 바람이었던, 한국 인터체인지개최가 오늘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생각할수록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부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영역은 물론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영역까지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sharing, 임상시험의 형태도 분산형임상시험 등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전체 streamline의 표준화는 CDISC가 유일한 해법임을 이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식약처뿐 아니라, 모든 보건 의료 영역에서 익히 알고, 의무화시켜가고 있기에, CDISC는 필수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 인터체인지가 시작이 되었고, 큰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욱 더 역량을 강화시키고, 알찬 결실을 맺기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가치'를 향해 나아갈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임상시험 및 보건의료관련연구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히 확장해나가기 위해서 CDISC의 인프라의 확충과 적용확대가 CDISC의 기본원칙과 정도(right way)에 따라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인터체인을 통해 멋진 정보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친숙의 장이 되어, 함께 같이 가치를 향해 나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